

초기불전에 나타난 삼매(samādhi)의 위상

김준호

[국문 초록]

이 글은 초기불전에 나타난 삼매의 중요성이 그 서술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남북 양전을 비교·대조 분석하게 되면 하나의 시각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양상이 발견된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전제는 삼매를 포함한 여타의 명상법 일반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삼매의 의미를 풍부하게 살펴보려는 시도 대신에 삼매의 위상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의 층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목표이다. 곧 삼매는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수단에 지나지 않거나 삼매의 획득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주장 모두 초기불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삼매의 위상에 대해 쉽게 단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사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초기불전에서 발견되는 삼매의 의미와 그 의의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삼매의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초기불교 명상법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복합성과 중층적인 구조를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삼매와 결합되는神通력과 지혜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초기불전에서 서술되고 있는 삼매를 남북 양전의 비교·대조 분석을 통해 삼매 중심의 서술 유형과 삼매 비중심 서술 유형으로 나누어 삼매의 위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주제어: 삼매(三昧), 선(禪), 명상, 지혜, 초기불교.

I. 시작하며

마음이 고도로 집중된 상태를 가리키는 사마디(samādhi)에 대한 경증(經證)의 제시는 이미 충분히 연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즈 테이비스 팔리어-영어 사전만 보더라도 남전 장부 『수바(Subha)』경에 나오는 ‘Samādhi-khandha’의 용례를 비롯해서 『청정도론』에 이르기까지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¹⁾ 따라서 이 글에서 삼매에 대해 서술한 해당 경문을 제시하여 다시 논의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논자가 관심을 두는 것은 삼매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초기불교의 명상법을 연구하기 위해 하나의 방법이나 개념을 정하여 관련 경문을 살펴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정당화시켜주는 경문을 찾아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해당 경문의 내용이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즉 반증되는 자료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도 만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개별 경전 몇몇을 제시하여 하나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작업은 자칫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간과하는 일방적 주장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본론에서 삼매를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경문을 제시하여 그 의미와 의의를 살펴보는 작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팔리어본인 남전과 한역본인 북전을 서로 비교·대조하여 삼매에 대한 설명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삼매의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삼매를 둘러싸고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

1) T. W. Rhys Davids & William Stede(1986), p.685.

실을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이 글의 제목에 ‘삼매의 위상’을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증 자료는 주로 산문계 경전을 중심으로 삼았다. 운문 계열에 속하는 『숫타니파타』, 『담마파다』 등의 자료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미 선행 논문에서 제시한 적이²⁾ 있기 때문이다. 삼매에 대한 가장 오래된 연구로는 마쓰나가[増永靈鳳]의 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초기 불교 선정 연구의 선구자로서 1930년대에 이미 현재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가 살펴본 경전은 남북전은 물론 『청정도론』, 『대비바사론』, 『해탈도론』에 이르기까지 논서도 폭넓게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

운문 계열의 경전을 중심으로 사마디의 과거분사형인 ‘samāhita’에 주목하여 경증을 제시한 쿠모이[雲井昭善]의 연구도 주목된다.⁴⁾ ‘samādhī’가 나오는 경문에만 관심을 두어 논의의 폭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문제점을 그의 지적 덕분에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개념 연구에는 그 파생어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논지로 확대시킬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엄밀한 개념분석의 태도는 최근의 저서인 모리[森 章司]의 『佛敎敎理の研究』(1995)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명상법과 관련되는 ‘santi,’ ‘samatha,’ ‘upasama’ 등의 개념을 풍부한 경증을 통해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⁵⁾

이하에서는 삼매와 신통력, 삼매와 지혜라는 소제목으로 삼매와 결합되는 주요 용례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초기불전에서 서술되고 있는 삼매를 남북 양전의 비교·대조 분석을 통해 삼매 중심의 서술 유

2) 김준호(2007), 『초기불교 선정설의 체계에 관한 연구』, pp.23-37.

3) 増永靈鳳(1934), 『原始佛敎に於ける禪定の研究』, pp.17-18.; 増永靈鳳(1948), 『根本佛敎の研究』, pp.253-254.

4) 雲井昭善(1976), 『初期佛敎と禪定・三昧・瑜伽』, p.128.

5) 森 章司(1995), 『佛敎敎理の研究』, pp.632-652.

형과 삼매 비중심 서술 유형으로 나누어 삼매의 위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초기불전에 나타난 삼매

1. 삼매와神通력

먼저 주목할 것은 삼매가神通력과 결합되는 경우이다. 곧 고도로 집중된 마음 상태를 성취하게 되면 그로부터 비범한神通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겠다. 물론 삼매뿐만 아니라 초기불교의 명상 일반에서도神通력이 언급되는 경우는 많다. 특히 사선정에서 제4선까지를 모두 닦은 경우에는 사선의 정형구 다음에 3명 6통을 차례로 성취하게 된다는 구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⁶⁾ 그런데 삼매의 경우에는 주로 숙명통을 얻는다는 구조가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남전 『장부』 제1 『브라흐마자라(Brahmajāla 梵網)』경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만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불방일로 바르고 온전하게 마음을 내어(sammā-manasikāram)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ceto-samādhiṃ)를 얻는다. 그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을 기억해낸다.⁷⁾

6) 붓다의 성도설에서도 사선-삼명의 구조는 빈번하게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김준호(2007), 『초기불교 선정설의 체계에 관한 연구』(pp.68-75) 참고.

7) DN. I.1, p.13 ; *Idha bhikkhave bhikkhu ekacco samaṇo vā brāhmaṇo vā ātappam anvāya padhānam anvāya anuyogam anvāya appamādam anvāya sammā-manasikāram anvāya tathārūpaṃ ceto-samādhiṃ phusati yathā samāhite citte anekavihiṭaṃ pubbe nivāsaṃ anussarati ...* ; 『大正藏』 권1, 『장아함』 제21

인용한 서술은 『장부』 제24 「파티카(pātika)」 경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등장한다.⁸⁾ 그러나 이들 경전에 나타난 삼매는 단지 숙명통의 성취가 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등장하는 삼매는 세존이 잘못된 견해에 빠지는 경우를 비판하면서 등장한다는 그 배경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음에 이어지는 서술을 보면,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 그리고 그것들의 ‘미(味) · 환(患) · 리(離)’를⁹⁾ 제대로 알아야 집착을 버리고 해탈할 수 있다는 논지를 만나게 된다. 이는 삼매에 도달하여 숙명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낌에 구속되지 않아야 해탈한다는 내용이 바로 중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장아함』 제15 「아누이」 경에서도 이와 같은 논지를 만나게 된다. 이 내용은 외도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삼매의 힘으로써 태어날 곳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매의 힘을 바탕으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고(苦), 집(集), 멸(滅), 미(味), 과(果), 출요(出要)를 보아야 여래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남전 역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대의가 통하는 유사한 논리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 신뢰할 만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삼매와 결합되어 등장하는 신통력은 그 힘의 성취 또는 발휘 자체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해탈을 얻는 데 발휘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읽어낼 수 있다.

『梵動經』, p.90a; 或有沙門婆羅門, 種種方便入定意三昧, 以三昧心憶二十成劫敗劫。

8) DN.Ⅲ.24, p.30.; 『大正藏』 권1, 『장아함』 제15 「아누이경」, p.69b; 彼入定意三昧, 隨三昧心, 憶本所生。

9) 이때의 ‘미환리’는 각각 ‘(욕망의) 맛, 근심거리, 벗어남’을 의미하는데, 이를 붓다의 욕망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욕망이 가져오는 맛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근심거리를 잘 살펴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리구조인 것이다.; 김준호(2006), 『초기불전에 나타난 붓다의 욕망관』 참조(pp.96-103).

2. 삼매와 지혜

불교의 수행 내용은 계정혜 삼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곧 계에 의거한 명상과 명상에 의거한 지혜의 획득이 불교 수행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삼매는 명상에 해당되므로, 삼매 수행의 의의는 지혜의 획득에 있게 된다. 초기불전에서 삼학의 수행과 그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나타난다. 삼매를 통해 지혜를 성취한다는 서술도 특별하게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삼매에서 지혜의 획득에 이르는 과정은 동일하거나 단일한 서술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삼매의 지혜에 이르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 또는 방법을 거쳐 지혜를 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장부』 제33 「상기티(saṅgīti)」 경에는 다음의 서술이 나타난다.

그가 의미를 체득하고 법을 체득할 때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기고 희열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몸은 경안하며 몸이 경안한 자는 즐거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지닌 자는 마음이 삼매에 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탈의 장소입니다.¹⁰⁾

인용 경문은 5해탈처(pañca vimuttāyanatanāni) 중에서 첫 번째 해탈처에 대해 설명한 구절이다. 삼매에 이르는 과정은 ‘교법의 의미 체득 → 환희 → 희열 → 경안 → 즐거움 → 삼매’로 도식화할 수 있는데, 이들 덕목을 순차적으로 성취함으로써 마침내 삼매에 이르게 된다는

10) DN.III.33, p.241 ; ... Tassa attha-paṭisaṃvedino dhammaṃ-paṭisaṃvedino pāmojjaṃ jāyati, pamuditassa pīti jāyati, pīti manassa kāyo passambhati, passaddha-kāyo sukhaṃ vedeti, sukhino cittaṃ samādhiyati. Idam paṭhamam vimuttāyatanam. ; DN.III.34, p.279에도 동일 내용.

구조임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삼매와 지혜의 관계는 5해탈문의 전체를 보아야 그 실마리가 드러나게 된다. 먼저 5해탈처의 내용 전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해탈처) 설법을 듣고 그 법에 대해 의미를 체득.

(제2해탈처) 설법을 듣지 못할 경우, 이미 듣고 배운 대로 다른 이에게 설법하면서 그 의미를 체득.

(제3해탈처) 설법을 듣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법을 설하지도 못했을 때 암송한 법에 의거하여 그 의미를 체득.

(제4해탈처) 위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충족되지 않았을 때, 듣고 배운 것을 잘 생각해보아[尋伺] 그 의미를 체득.

(제5해탈처) 위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을 때, 하나의 삼매 표식을(samādhī-nimitta) 잘 지니고 마음을 잘 내어 지혜로써(paññāya) 제대로 이해하여 그 의미를 체득.

여기에서는 교법의 의미를 체득한다는 목표에서 하나씩 방법론이 추가되어 가는 구조가 드러나고 있는데, 다섯 번째 제시되어 있는 삼매의 표식¹¹⁾ 잘 간직하여 지혜로써 교법의 의미를 체득한다는 경문에서 삼매의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곧 교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또는 덕목으로 강의, 암송, 사색 과정[尋伺]이 권장되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삼매를 닦아 지혜를 터득한 다음에 가능하다는 설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삼매는 지혜의 계발에 필수가 된다는 논점을 읽어낼 수 있지만, 삼매는 또한 지혜의 계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해석의 여지도 존재한다고 생각

11) 여기서는 니미타(nimitta)를 ‘표식’으로 옮겼다. 문맥에 따르면, 삼매를 행하기 위한 도구(또는 이미지)라는 성격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미타에는 ‘겉모습이나 인상’ 정도로 소박하게 풀어야 할 때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준호(2007), 『초기불교의 선정체계에 관한 연구』(pp.30-31) 참고.

된다.

그런데 이 경전에 대응하는 한역은 『장아함』 제9 『중집경(衆集經)』인데, 하나씩 방법을 추가해가는 남전의 서술방식과는 달리 제1해탈처 부분만 유사하게 나올 뿐¹²⁾ 이하의 서술은 축약되어 있어서 각 단계별로 전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내용도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다. ‘사유관찰, 분별법의’라는 대의는 남전과 일치하지만, 남전에서 ‘삼매’가 나오는 데 비해 북전에서는 ‘선정’을 들고 있고, 특히 남전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선정의 성취 이후 여실지견(如實知見)의 획득이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삼매의 위상에 차이가 존재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경전에 나타난 사례만으로 논증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장부』 제34 『다수따라(Dasuttara)』 경에 나온다. 여기에는 생겨나게 해야 할 5가지 법을 말하었는데, 모두 삼매를 매개로 한 지혜의 발생에 관한 것이다. 제5법에 보면, “나는 이 삼매에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고, 주의를 기울여(삼매에서) 나온다.”라고¹³⁾ 서술되어 있다.

‘정념정지(正念正知)’에 기반하면서 삼매에 들어가고 또 나온다는 말은 ‘주의집중’과 ‘알아차림’의 작용과 더불어 행해진 삼매야말로 지혜로 직결된다는 논지이다. 이는 또한 팔정도의 정념·정지의 구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초기불교 명상의 기본적인 성격을 드러내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대응하는 북전인 『장아함』 제10 『십상경(十上經)』에서 정념정지 대신에 ‘일심(一心)’이 들어가 있어서 내용 일치에

12) 『大正藏』 권1, 『장아함』 제9 『衆集經』, p.51c. ; (思惟觀察分別法義) 心得歡喜, 得歡喜已得法愛. 得法愛已身心安隱. 身心安隱已則得禪定. 得禪定已得如實知見. 是爲初解脫入. = 『大正藏』 권1, 『장아함』 제10 『十上經』, p.53c.

13) DN.III.34, pp.278-279 ; imam samādhim sato va samāpajjāmi, sato vutthahāmi
...

는 문제가 있지만 ‘내외지(内外智)’가 생겨난다는 서술이 있어서¹⁴⁾ 삼매와 지혜의 관계를 말해주는 대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정념정지에 토대한 삼매에 의해 지혜를 성취할 수 있다는 하나의 논거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부』 제5 『아낭가나(Anāgaṇa)』 경의 서술에서 정념정지와 삼매가 남북 양전에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므로 좀 더 신뢰를 주는 내용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선남자들은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교활하지 않고, 거짓이 없으며, 속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수다스럽고 쓸데없이 말하지 않으며, 감관을 수호하고, 음식의 양을 절제하고, 자지 않고 수행에 힘쓰고, 사문다움을 기대하고, 배움에 열심이고, 사치하지도 태만하지도 않고, 속박되지 않음으로 나아가고, 원리에 앞장서고,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며, 주의[念]를 일으키고 바로 알아차려 [正知]하여,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어(samāhita ekaggacittā), 지혜를 갖추어 맑고 청정하다.¹⁵⁾

남북 양전의 서술 내용이 미세한 표현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념정지, 삼매, 지혜 개념은 동일한 무게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에 근거해서 ‘정념정지 → 삼매 → 지혜’의 수행구조가

14) 『大正藏』 권1, 『장아함』 제10 『十上經』, p.53c. ; 五子於三昧一心入一心起生内外智.

15) MN. I, p.32 ; Ye pana te kulaputtā saddhā a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itā, asaṭhā amāyāvino akeṭubhino, anuddhatā anunnalā, acapalā amukharā avikīṇṇavācā, indriyesu guttadvārā, bhojane mattaññuno, jāgariyaṃ anuyuttā, sāmaññe apekhavanto, sikkhāya tibbagāravā, na bahulikā na sāthalikā, okkamane nikkhittadhurā paviveke pubbangamā, āraddhaviṇiṇā pahitattā, upatṭhitasati sampajānā, samāhita ekaggacittā, paññāvanto aneḷamūgā. ; 『大正藏』 권1, 『중아함』 제87 『機品經』 제1, p.569c. ; … 尊者舍梨子。如是若有人不諛諂不欺誑。無妬嫉有信。精進而無懈怠。有正念正智，修定修慧。心不狂惑守護諸根。廣修沙門而善分別。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명료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이들 자료에 근거하면, 불교의 삼매는 단독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여타의 명상법과 상호 보완 나아가 지혜를 지향할 때에 더 나은 위상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삼매를 닦고 익히면 몸을 움직이거나 흔들지 않으며 마음도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출입식념(出入識念)의 삼매를 닦고 익히면 몸을 움직이거나 흔들지 않으며 마음도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는다.¹⁶⁾

인용문은 『상응부』 제54 『아나파나(ānāpāna)』 상윳따에 나오는 구절이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여기에 등장하는 삼매는 단독의 삼매수행이 아니라 호흡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는 ‘출입식념’을 닦아 도달되는 삼매이다. 따라서 삼매가 몰입 유형에 속하는 명상인 사마타(samatha 止) 계열에 속하는 것이라 규정시키더라도, 이미 문맥 속에서 사띠 수행과 겸수되고 있는 삼매의 성격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현재 기존의 논문에서 보이듯이 ‘(사마타 혹은 사마디)→사띠→위빠사나→지혜’의 수행구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띠→사마디’의 수행구조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경문은 출입식념의 수행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상(anicca), 이탐(virāga), 소멸(nirodha), 버림(paṭini-ssagga)’ 등에 대해 따라가며 보면서(anupassi 隨觀) 출입식념의 삼매

16) SN.V.547, p.316 ; Katamassa ca bhikkhave samādhissa bhavitattā bahulikātattā neva kāyassa iñjitattam va hoti phanditattam vā. na cittassa iñjitattam vā hoti phanditattam vā. Ānāpānasatisamādhissa bhikkhave bhavitattā bahulikātattā neva kāyassa iñjitattam vā hoti phanditattam vā na cittassa iñjitattam vā hoti phanditattam vā.

를 닦아 나간다. 즉, 이때의 삼매는 지혜를 얻기 위한 예비수행에 불과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띠와 사마디가 반복 수행되는 것은 물론 위빠사나 수행까지도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기불교의 명상법은 어떤 하나의 수행법을 정해 놓고 그에 대한 서술을 찾아보면, 중층적[사띠→사마디, 사마디→사띠]이고 복합적인 성격[사띠→사마디→위빠사나→(사띠)→사마디]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

이 경전의 대응 한역인 『잡아함』 제806 『계빈나경(闕賓那經)』의 서술 내용을 보면, 남전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유하며 주의력을 묶어 둠[思惟繫念], 호흡의 소멸[識滅], 유익한 배움에 대한 관찰[觀察善學]’ 등의 서술이 총동원되면서 이를 삼매로 정의하는 구절을¹⁷⁾ 만날 수 있다. 비록 남북 양전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지만, 적어도 ‘사유, 염, 관찰’ 등이 삼매를 성취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호흡의 소멸을 제외하면 삼매만의 특징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복합적이면서 중층적인 삼매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명상법으로서 삼매의 위상

1) 삼매 중심 유형

삼매의 성격을 논의하면서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복합적이고 중층

17) 『大正藏』 권2, 『잡아함』 제806 『闕賓那經』, pp.206c-207a. ; 若比丘, 修習三昧, 身心安住, 不傾不動, 住勝妙住者, 此比丘, 得此三昧, 不動方便, 隨欲即得. … 若比丘 … 入林中, 若閑房露坐, 思惟繫念乃至息滅, 觀察善學, 是名三昧. 若比丘, 端坐思惟, 身心不動, 住勝妙住.

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부각시켜 논의를 전개해왔다. 이제는 삼매의 위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논의를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증지부』 『물라(Mūla)』 경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보인다.

벗이여, 일체 제법은 의욕(chanda)을 근본으로 하고, 일체 제법은 작의(作意 manasikāra)로부터 생겨나며, 일체 제법은 접촉에서 발생하며, 일체 제법은 감수(感受)로 모이며, 일체 제법은 삼매를 맨 앞으로 하며 (samādhīpamukhā), 일체 제법은 염(念)을 증상(增上)으로 하며 (satādhīpateyyā), 일체 제법은 지혜를 최상으로 한다(paṇṇuttarā). …
18)

인용문에서 확인되듯이, 의욕, 작의, 접촉, 감수, 삼매, 염, 지혜는 모든 법의 근본으로써 병렬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삼매, 염, 그리고 지혜에는 ‘맨 앞, 증상, 최상’ 등의 서술어가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좀 더 높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설명이 나와 있어 상호 층차가 엇보이기는 하지만 구조상으로는 병렬형태를 넘어서지 않는다. 최상이라는 서술어가 붙어 있는 지혜는 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사마디’와 ‘사띠’ 사이에 그 어떤 우열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즉, 내용적으로는 이 셋을 모두 중시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주 13에 인용한 것처럼, 복전의 서술도 일치하고

18) AN.IV.8.83, p.339 ; … chandamūlakā āvuso sabbe dhammā, manasikāra sambhavā sabbe dhammā, phassasamudayā sabbe dhammā, vedanāsamosaṇā sabbe dhammā, samādhīpamukhā sabbe dhammā, satādhīpateyya sabbe dhammā, paṇṇuttarā sabbe dhammā, … = AN.V.10.58, p.107 앞 내용과 동일 ; 『大正藏』 권1, 『중아함』 제113 『諸法本經』, p.602c. ; 一切諸法以欲爲本. … 一切諸法以更樂爲和. 一切諸法以覺爲來. 一切諸法以思想爲有. 一切諸法以念爲上主. 一切諸法以定爲前. 一切諸法以慧爲上. …

있기 때문에 남북 양전에 공통되는 사고로써 인정할 수 있겠다. 혹자는 이에 대해 불교 명상법의 이해에 혼선을 초래한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오히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성격이야말로 초기불교의 갖가지 명상법에 내재된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견을 이룬 자, 저 세존이고 아라한이며 정등각자인 그에 의해 正定の 수행을 위한 正定の 완성을 위한 일곱 가지 삼매의 필수품이 잘 알려졌다. 7가지란 무엇인가? 7가지란 곧 正見, 正思惟, 正語, 正業, 正命, 正精進, 正念이다. 이 7가지로써 마음의 하나 됨이 갖추어지면 이를 성스러운 正定の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하고, 필수품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정견에 연하여 정사유가 생기고, ... 정념에 연하여 정정이 생기고, 정정에 연하여 正智(sammā ñāṇa)가 생기고 정지에 연하여 正解脫(sammā vimutti)이 생긴다.¹⁹⁾

위 경문은 『장부』 제18 「자나와사바(Janavasabha)」경에 나오는 설명이다.²⁰⁾ 비록 범천의 입을 빌려 부처를 찬양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설명이지만,²¹⁾ 사념처, 팔정도 등 초기불교의 중요한 수행법이 다루어

19) DN.II.18, pp.216-217. ; Yāva suppaññattā v' ime tena Bhagavatā jānātā passatā arahatā sammā-sambuddhena satta samādhī-parikkhāra sammā-samādhissa bhāvanāya samādhissa pāripūriyā. Katame satta? Seyyathidaṃ sammā-ditṭhi, sammā-saṃkappo, sammā-vācā, sammā-kammanto, sammā-ājīvo, sammā-vāyāmo, sammā-sati. Yā kho bho imehi satta aṅgehi cittass' ekaggatā parikkhatā, ayaṃ vuccati bho ariyo sammā-samādhī sa-upaniso iti pi saparikkhāro iti pi. Sammā-ditṭhissa bho sammā-saṃkappo pahoti, ... sammā-satissa sammā-samādhī pahoti, sammā-samādhissa sammā-ñāṇaṃ pahoti, sammā-ñāṇassa sammā-vimutti pahoti.

20) 이 경전 자료를 인용하여 그 의미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보인다. '正定'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부처의 근본입장에 가깝다는 논지로 삼고 있다. ; 增永靈鳳(1948), 『根本佛教の研究』, p.229.

21) 각목은 이 경의 존재에 대해 바라문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적인 관점에서 불교 수행을 설명하고 있어서 다른 경전의 서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주석하였다. 곧, 삼매 중심의 관점에서 불교 수행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 각목스님 옮김

지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용문에 드러나 있듯이, 이 내용의 초점은 삼매에 맞추어져 있다. 곧 바르고 완전한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 팔정도의 나머지 일곱 가지 수행덕목이 모두 필요하다는 견해가 토대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견해, 사유, 염(念)’ 등은 바르고 완전한 삼매의 성취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경전에 의거하여 말하면 사띠보다는 사마디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인용문의 앞부분에서 사념처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서 사념처에 대한 수관(隨觀)에 이어 올바르게 완전한 삼매를 성취하여 지견을 갖추게 된다는 동일한 논지가²²⁾ 드러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삼매 중심의 서술임이 분명하게 보인다.

이 경전에 대응하는 한역을 보면 문제가 좀 더 분명해진다. 『장아함』 제4 『사니사경(閼尼沙經)』에서는 얼핏 보면, 정견에서 정념까지 용어만 나오고, 또한 여래는 이를 잘 분별해서 설한다는 서술만 보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사례로 삼을 수 있겠지만, 일곱 가지 삼매의 갖추[七定具]이라는 설정은²³⁾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된다. 비록, 일곱 가지 덕목이 正定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자 필수품이라는 서술은 없으나, 이미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정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수행법이며, 삼매를 중심으로 정념을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006), 『디가니까야』 제2권, pp.371-373.

22) DN. II.18, p.216.

23) 『大正藏』 권1, 『장아함』 제4 『閼尼沙經』, p.36a ; 如來善能分別, 說七定具. 何等爲七? 正見・正志・正語・正業・正命・正方便・正念. 是爲如來善能分別, 說七定具.

2) 삼매 비중심 유형

앞에서는 삼매 중심의 경문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여기서는 삼매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경문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의도는 서두에 서도 지적했듯이, 초기불전에 나타나는 갖가지 명상법들의 이중성, 복합성 및 중층구조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곧 하나의 명상법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경문을 살피게 될 경우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중심’이라는 말은 삼매가 목적이 아니라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남전 『중부』 제20 『위타카산타나(Vitakkasaṇṭhāna)』 경에 그 실마리가 보인다. 이 경에서는 뛰어난 마음을 닦기 위해 다섯 가지 인상(nimitta)에 대해 마음을 일으켜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비구가 어떤 인상에 대해 마음을 일으켜 (자신에게) 탐·진·치가 동반되고,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작용이 생겨나면 그 인상과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인상이 동반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 인상과는 다른 선하고 건전한 인상에 마음을 일으키면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은 버려지고 사라진다. 그 버림으로부터 마음이 확립되고 고요해지고 한 점에 집중되어 삼매에 이른다.²⁴⁾

끝부분에 삼매에 도달한다는 서술 때문에 인용문의 대의를 삼매의

24) MN. I.20, p.119. ; *Idha bhikkhave bhikkhuno yaṃ nimittāṃ āgamaṃ yaṃ nimittāṃ manasikaroto uppajjanti pāpakā akusalā vitakkā chandūpasamhita pi dosūpasamhita pi mohūpasamhita pi, tena bhikkhave bhikkhunā tamhā nimittā aññaṃ nimittāṃ manasikātabbhaṃ kusalūpasamhitaṃ ; tassa tamhā nimittā aññaṃ nimittāṃ manasikaroto kusalūpasamhitaṃ ye pāpakā akusalā vitakkā chandūpasamhita pi dosūpasamhita pi mohūpasamhita pi te pahiyanti te abbatthanti gacchanti, tesaṃ pahānā ajjhataṃ-eva cittaṃ santiṭṭhati sannisidati ekodihoti samādhivati.*

획득으로 파악하기 쉽다. 그러나 삼매에 도달한 뒤에도 다시 사유작용에 탐·진·치가 개입되어 불건전하고 악한 사유과정의 반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서술이 나타나면서 다시 닦아야 될 덕목이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이때 다시 닦아야 될 덕목의 내용으로는 ‘위험성 성찰, 주의를 기울이지도 마음을 내지도 앎, 사유 활동에 수반되는 일체 작용의 멈춤, 마음으로 마음을 억제, 압박’ 등이다.

이 경의 대의는 모두 5단계에 걸친 닦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사유작용에서 탐·진·치가 개입되지 않는 경지이지 삼매 그 자체가 아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삼매가 이루어지지만 이때의 삼매는 어디까지나 한계를 지닌 삼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매 수행은 그 집중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탐·진·치가 제거되지 않는 한 불완전한 하나의 작은 성취일 뿐이라는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이에 대응하는 한역인 『중아함』 제101 『증상심경(增上心經)』은 구제적 서술에서 부분적인 차이는 보이지만, 5가지 인상에 대한 작의(作意)의 내용은 서로 일치하며, 비유로 든 내용까지 일치하고 있어서²⁵⁾ 남북 양전에 공통으로 나타난 이 내용은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면, 삼매는 사유과정의 청정성이라는 목표를 성취시켜주는 하나의 도구적 수행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남전 『장부』 제28 『삼파사다니아(sampasādanīya)』 경에서는 삼매의 위상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서술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네 가지 견정(見定 *dassana samāpatti*)이라는 주제로써 삼매에 들어 관(觀)을 행하는 구절이 나타난다. 곧, 첫 번째 단계에서 마음이 삼매에 들어 머리카락에서 발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몸을 살펴보아 그것들이 모두 부정(不淨)하여 하나도 탐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체득하는 구조

25) 『大正藏』 권1, 『중아함』 제101 『증상심經』, pp.588a-589a.

인 것이다.

제2 단계에서는 골수와 치아, 제3단계와 4단계에서는 각각 의식의 흐름이 무단히 상속되어 머무르거나 머무르지 않거나 등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잘 안다는 서술을²⁶⁾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한역인 『장아함경』 제18 「자환희경(自歡喜經)」에서도 의식이 금세에도 후세에도 있지 않다는 제5견정까지 설정하는 부분만 제외하면 내용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에 근거하면, 삼매는 그 자체가 완결성을 갖는 수행이 아니라,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서 관(觀) 수행을 위한 예비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경전의 내용에 따르면, 삼매는 사유의 청정성 확보 및 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정이 가능한 것이다.

3) 삼매의 서술을 둘러싼 남북 양전의 내용 불일치

이제 남북 양전에서 삼매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의 서술이 상호 불일치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남북 양전의 비교·대조 분석방법론이 무의미하다면 이 작업은 중요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삼매를 설명하는 경전의 내용이 남북 양전에서 서로 불일치되는 사례를 검토해보면, 적어도 삼매의 위상을 결정하는 과정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남전 『장부』 제34 「다수따라(Dasuttara)」 경에서는 닥아야 할 3가지 삼매가 등장하는데,²⁷⁾ 이에 대응하는 한역에서도 3가지 삼매를 묘사

26) DN.III.28, pp.104-105.

27) DN.III.34, p.274 ; Katame tayo dhammā bhāvetabbā? Tayo samādhi, savitakko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삼삼매(三三昧)로써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²⁸⁾ 곧 남전에서는 퇴보에 빠진 삼매, 정체하는 삼매, 수승함에 동참하는 삼매, 꿰뚫음에 동참하는 삼매를 4가지 법으로 정의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북전에서는 공(空), 무상(無相), 무작(無作)이라는 세 가지 삼매를 들고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의 존재는 삼매를 닦음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내용이 일치하면서 삼매의 서술에서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남북전에서 다른 내용은 일치하면서 삼매를 설명하는 서술이 다른 경우이다. 곧, 북전에서는 삼매(定)만 나와 있는데, 남전에서 ‘삼매 + 정념정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장아함』 제2 『유행경(流行經)』에는 법의 거울[法鏡]이라는 법문이 나오는데, ‘계를 구축하여 삼매를 성취한다’는 내용이 그 골자이다. 그런데 여기서 ‘삼매정(三昧定)’을 획득한다는 내용이²⁹⁾ 나타나는데 비해 대응하는 남전인 『장부』 제16 『마하-파리닙바나(Mahā-parinibbāna)』 경에서는 ‘법정’에 대한 서술은 한역과 동일하지만 북전에는 없는 정념정지(正念正知)와 사념수관(四念隨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다.³⁰⁾ 이것은 남전에서 삼매보다 정념정지가 좀 더 중요한 수행법으로 보았던 관점이 드러나는 자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확보될 수 있다. 곧, 초기불교에서 명상법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하나의 관점만으

savicāro samādhi, avitakko vicāramatto samādhi, avitakko avicāro samādhi.
Ime tayo dhammā bhāvetabbā.

28) 『大正藏』 권1, 『장아함』 제10, p.53a; 云何三修法。謂三三昧。空三昧無相三昧無作三昧。

29) 『大正藏』 권1, 『장아함』 제2 『流行經』, p.13b; 信賢聖戒清淨無穢無有缺漏, 明哲所行獲三昧定。阿難, 是謂法鏡。

30) DN. II.16, pp.94-95.

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성격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삼매가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정념정지로 바뀌어 있는 경우이다. 북진 『장아함』 『유행경(流行經)』에서는 악마 파순의 반열반 요청에 응하여 세존께서 3개월 뒤 반열반에 들 것을 선언하신 뒤 정의삼매(定意三昧)에 들어 수명연장을 포기하였다는 내용이³¹⁾ 등장한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남전에서는 정념정지(正念正知)에 들어 수명 연장을 포기했다는 서술로 대체되어 있다. 다른 경문에서는 수명 연장의 방법으로써 사신족(四神足)이 나타나고 있어³²⁾ 명상법을 둘러싼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다른 경문의 서술은 일치하면서 수행법이 나오는 부분이 빠져버린 경우³³⁾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III. 맺으며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초기불교의 명상법 연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존재와 더불어 반증 가능한 자료도 발견된다. 이러한 양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자를 당혹하게 만들기도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반증되는 자료를 가볍게 처리하거나 무시해버리면 그 안에 들어 있을지도 모를 진실성도 더불어 놓칠 수 있다.

본론의 ‘삼매와神通력’에서는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 나아가 그것들의 미(味)·환(患)·리(離)의 논지가 삼매에 들어 얻는神通력 차

31) 『大正藏』 권1, 『장아함』 제2 『유행經』, p.15c. ; DN.II, p.106 ; DN.II, p.114.

32) DN.III.26, p.77. ; 『大正藏』 권1, 『장아함』 제6 『轉輪聖王修行經』, p.42上-中.

33) SN. I.1.2.10, p.12 ; ... kāme pahāya satimā sampajāno dukkhaṃ na sevetha anattasamphitan-ti. ; 『大正藏』 권2, 『잡아함』 제1078 『散倒吒經』, p.282a. 앞 내용은 남전과 일치하나 정념정지 내용은 없음.

체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삼매와 지혜’에서는 삼매가 지혜를 얻기 위한 예비수행에 불과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띠와 사마디가 반복 수행되는 것은 물론 위빠사나 수행까지도 맞물려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은 초기불교의 명상법에는 중층적[사띠→사마디, 사마디→사띠]이고 복합적인 성격[사띠→사마디→위빠사나→(사띠)→사마디]을 띠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데 힘을 기울였다.

제3절에서는 삼매가 중심이 되는 유형과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경문을 분석하였다. 삼매 중심의 유형에서는 팔정도의 ‘정정(正定)’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수행법이라는 점제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삼매 비중심의 유형에서의 삼매는 그 자체가 완결성을 갖는 수행이 아니라,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서 관(觀) 수행을 위한 예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이들 경전의 내용에 따르면, 삼매는 사유의 청정성 확보 및 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정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삼매의 서술에서 남북 양전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되는 용례를 모두 검토함으로써 삼매의 위상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삼매 수행의 방법에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남전에서 정념정지를 우위에 두려는 의도가 나타나는 데 반해, 북전에서는 삼매 중심의 사고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Pali Nikāya:

Dīgha Nikāya vol.1,2,3, London, Pali Text Society, 1966-1976

Majjhima Nikāya vol.1,2,3, London, Pali Text Society, 1974-1979.

Saṃyutta Nikāya vol.1,2,3,4,5, London, Pali Text Society, 1960-1976.

Aṅguttara Nikāya vol.1,2,3,4,5, London, Pali Text Society, 1958-1976.

『大正新修大藏經』(1969, 初版1924) 卷1, 『長阿含經』, 『中阿含經』, 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 東京; 大藏出版,

『大正新修大藏經』 卷2, 『雜阿含經』, 『增一阿含經』.

각목스님 역(2006), 『디가 니까야 : 길게 설하신 경(長部)』 권1-권3, 초기불전 연구원.

대림스님 역(2006-2007), 『앙굿따라 니까야 : 숫자별로 모은 경』 권1-권6, 초기불전연구원.

전재성 역(2003), 『맛지마 니까야』, 권 1-5, 한국 빠알리어성전협회.

전재성 역(2002), 『상윳따 니까야』, 권1-11, 한국 빠알리어성전협회.

T. W. Rhys Davids & William Stede, *Pali English Dictionary*, London, Published by Pali Text Society, 1986.

김준호(2007), 『초기불교 선정설의 체계에 관한 연구』, 부산대 철학박사 학위 논문.

김준호(2006), 『초기불전에 나타난 붓다의 욕망관』, 『선과 문화』 제3호, 한국 선문화학회.

森 章司(1995), 『佛敎敎理の研究』, 東京堂出版.

雲井昭善(1976), 『初期佛敎と禪定・三昧・瑜伽』, 『宗教研究』 230.

增永靈鳳(1934), 『原始佛敎に於ける禪定の研究』, 日本佛敎學會年報(第七年).

增永靈鳳(1948), 『根本佛敎の研究』, 風間書房.

[Abstract]

Status of Samādhi in the Early Buddhist Text

Kim, Jun-ho

The aim of this research is primarily to illuminate the statue of samādhi in the early Buddhist texts. That is to say, the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amādhi’, which is described differently in the Pali Canon and Chinese Agamas.

Therefore, one perspective is not suitable for the understanding of samādhi. This presupposition would be extended to be understood as meditative methods in general.

Instead of exploring the various meanings of samādhi, I realize that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statue of samādhi. One can argue that samādhi is a pre-requirement for archiving wisdom. Or the other hand, one can argue that attaining samādhi itself is meaningful and very important. Because both theories appear in the Pali Nikaya it is very difficult to define the statue of samādhi.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reveal th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interpretation of samādhi. Furthermore, I want to point out the multiple meanings and complex structures of samādhi in the early Buddhist texts.

I first examine the mysterious power and wisdom connected with samādhi and the aspect of samādhi explained in the Pali Nikaya and Chinese Agamas. Through the comparing and contrasting of two different textual versions, I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scourse focused on samādhi and discourse focused on non-samādhi which eventually reveals what samādhi is and where samādhi is.

Key Words: samādhī, jhāna, meditation, paññā, early Buddhism.

김준호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철학과 강사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초기불교 선정설의 체계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관심 분야는 초기불교이다.

[2011.11.14. 투고; 2011.12.16. 수정; 2011.12.18. 채택]

